



제20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이 5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에서 열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문정인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정·문대림·김준형 국회의원, 박두화 제주도의회의원이 참여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 참여와 혁신으로 여는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

세계평화의 섬, 미래 평화 전략 모색

**제20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좌장 맡아
박두화 도의원, 국회의원 등
도의회 역할과 도민 참여 강조**

제20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 참여와 혁신으로 여는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에서 개최됐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평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정·문대림·김준형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17대 실천 사업이 제시됐지만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 도의회 역할과 자발적인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제주는 냉전 종식과 세계 평화,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평화 담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며 동북아 평화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올해 의회 세션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역할을 돌아보고 참여와 혁신을 통해 미래 평화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다시 한번 역할을 새롭게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자국 우선

주의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또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주는 더욱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현장을 변화시키는 혁신은 평화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의 평화모델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립되어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면안내

- 2 제주포럼 의회세션
- 3~5 의회 주요 이슈
- 6 故 강연호 의원 영결식
- 7 함께 합시다
- 8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섬’...상징적 사업·지역공동체 참여 필요

지난 5월 29일 열린 제20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평화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민 참여와 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화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의회세션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참여와 혁신으로 여는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날 “4·3이라는 아픈 기억이 제주를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게 만든 것으로 생각

**제주의 평화 비전 공유
도민 참여·의회 역할 강조**

**박두화 제주도의원 토론회
“일상에서 평화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과연 우리가 평화를 당위적으로 이해하는 것 외에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이 포럼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던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만의 노력으로 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담론을 끌고 나갈 포럼 2.0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제주포럼의 동력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 평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의 가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생태환경의 가치, 평화 인권의 가치”라며 “돌이켜보면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만 했을 뿐 우리만의 이야기였다. 세계인들 속 ‘평화의 섬’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제주에 인권재판소를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4·3을 극복해 온 이야기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등 제주가 인권·평화의 중심이 되어 할 것”이라며 “또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본부 또는 국제연수원 유치 검토도 제안해 본다.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회의원은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곳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

하기에 제주에서 평화를 많이 이야기한다”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야 하며, 제주도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운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두화 부위원장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를 외쳤고, 기반을 다져왔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구호를 넘어 생활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마을 단위 평화 프로젝트, 주민 주도의 갈등 해결, 기억의 공간 조성 같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모일 때 평화가 생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두화 부위원장은 특히 “제주는 상처를 평화로 바꾼 섬”이라며 “이 경험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평화의 해법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회도 그 길을 도민과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지역문제를
쉽고~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필요한 조례(정책)를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와우~ 이렇게 쉬을 수가...



입법참여가 쉬워진
주민조례 청구, 어떻게 하나요?

‘주민e직접시스템(www.juminegov.go.kr)’을 통해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불러오길”

제438회 임시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가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보상 지원사업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다 직접적인 제주 관광여행 경비 지원 등의 관광객 유인 시책 등을 통해 제주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 등이 나왔다.

5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가결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
추진 과정의 절차 등 지적

“객관적 기준·투명한 절차와
성과 지속 점검 체계 필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 애월읍갑) 회의에서 김대진 의

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지 거주자도 지원이 해당하는 것이냐”라며 “이는 기부행위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물렛 방식의 인센티브 지원은 도박이다. 행정

에서 도박을 조장하면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정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굳이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처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급한 일이었다면 지난 4월 회기에서 다뤘으면 될 일”이라고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보완 미흡에 대해 도의회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상황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회의 입법 권한과 통제 기능이 형식적인 사후 절차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지금의 관광산업 위기와 도민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지원사업은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환류 체계 또한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제주 관광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비자 전환 제도 마련해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수요 높아
농어촌 인력난 해소 일환
비자 전환 제도 마련 촉구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제안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한 임정은 위원장은 해당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사업주가 지속 고용을, 근로자가 지속 근무를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을 운영 중이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근로 후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이후에는 추가 고용을 원하더라도 비자 규정상 반드시 출국해야 해 농가는 매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행정기관 역시 서류 심사 업무로 인한 행정 부담이 느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

에 상정된 후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임정은 위원장은 “우리 농업 현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서 비전문취업 인력(E-9)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주가 원하는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는 등 농어촌 인력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소극장 살리기’ 머리 맞대

문화관광체육위 주최 간담회서
전문가·행정 모여 활성화 논의

도내 민간소극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행정의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 애월읍갑)가 지난 5월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 민간소극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다.

이날 (사)한국소극장협회 이인복 부이사장이 ‘소극장의 사회적 기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운데

시장 확대와 전문성 강화, 소극장 건립 등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인복 부이사장은 “예술단체는 광고, 관에서는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관객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획, 홍보, 무대 기술 인력 등의 전문 인력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극장을 건설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이 좌장을 맡고 양성미 제주 아트락 소극장 대표, 이정만 전 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이훈경 극단 제자백가 대표, 정민자 (사)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장 등이 참

여해 소극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도 문화예술의 섬이라 볼릴 만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높은 임대료와 지원 부족, 인력난 등으로 민간소극장의 운영이 어렵다”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양영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 예술계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민간소극장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 속에서 버티고 있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방향성·추진 전략 모색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난 5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강주치의제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박영문 간호사가 사례 발표에 나서 해당 지역의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펼칠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살폈다.

강성의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 도민에게 주치의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라며 “건강주치의제가 일상에서 건강을 돌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 수열에너지 도입 논의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월 19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지역 학교에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청 및 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수관로가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열원의 활용 조건이 우수하기 때

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열에너지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며 “학교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면 탄소중립이라는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방안 강구

재정경제포럼, 연구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월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지방세 감면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까지 지방재정전략연구소가 수행하게 된다.

박두화 대표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불안정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연구가 제주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운영 현황 공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월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 범죄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현지홍 의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보완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정아카데미’ 도민 호응

**상반기 아카데미 마무리
“유익한 시간” 수강생들 입모아
하반기 지속 ‘기대감 높여’**

올해 첫선을 보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정아카데미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개강한 2025년 상반기 의정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의정아카데미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주의 확산 및 시민사회 지속 발전과 도민의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8회에 걸쳐 각 분야 전문 강사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주권 △지방의회의 이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방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 등을 교육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활동 이야기

를 공유하는 등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각종 행정제도의 작동 원리와 시민참여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며 “제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입을 모았다.

상반기 의정아카데미 수료식은 지난 5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17명의 수강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이상봉 의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이

번 아카데미 과정이 도민의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면서 “하반기 아카데미 과정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아카데미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오는 8월 23일 첫 교육이 예정됐으며 8회에 걸쳐 주민 조례 만들기, 지역 갈등의 이해와 해결 방법, 성평등 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과제 등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



도의회 옴부즈맨 우수사례 현장 견학 실시

4월 29일~5월 1일 전라남도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및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벤치마킹 첫날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를 방문, 문승우 의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옴부즈맨 제도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옴부즈맨 위원들은 전주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제주형 도

시재생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 사례를 견학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담양 에코센터와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창준 옴부즈맨 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 지역 주요 시설 방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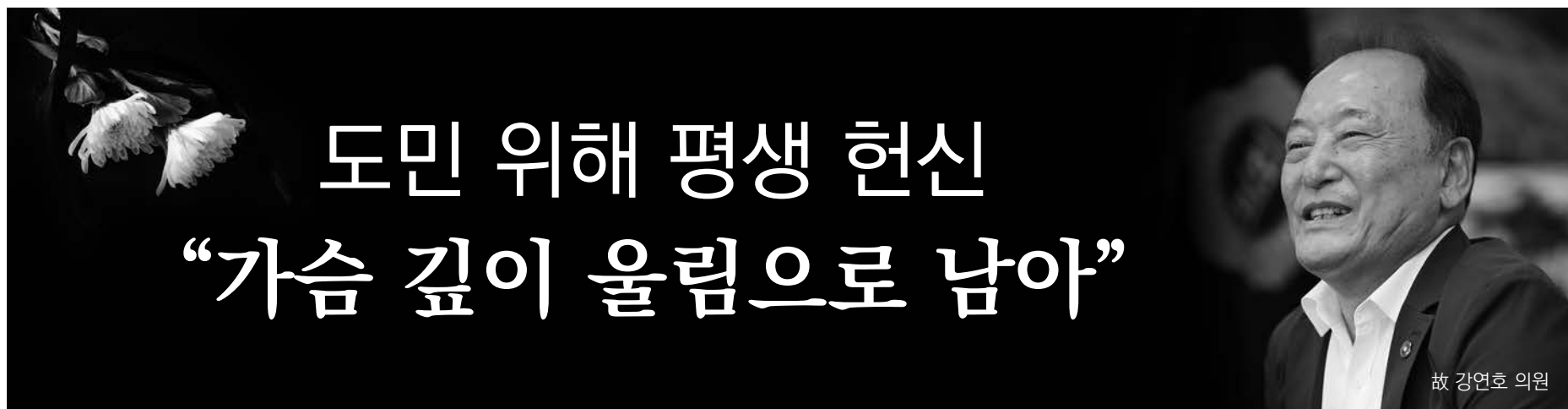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지역 현안 관련 주요 시설을 방문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이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용암해수센터,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을 방문해 각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듣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와 제주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자문위원회 김원배 위원장은 “제주 현안 관련 주요 시설의 운영 실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의정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 숙환으로 별세 5월 31일 도의회葬 거행

이상봉 의장弔詞 통해 회고 “희망 비춘 등불 같은 분”

지난 5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한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의 영결식이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앞 마당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葬)으로 치러졌다.

유가족과 장의위원장인 이상봉 의장, 도의원,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역대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거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영결식에서 조사(弔詞)를 통해 “강연호 의원님께서서는 평생을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며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던 따뜻한 동행자이자, 희망을 비추던 등불 같은 분”이라고 고인을 회고했다.

이상봉 의장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공무원 공채에 합격하는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

렇게 시작된 40여 년의 공직 여정은 늘 성실과 청렴으로 빛이 났다”라며 “행정기관의 지원이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 난로도 제대로 켜지 못하던 어르신들을 안타까워하며 20년 넘게 해마다 경로당에 성금을 기탁하며 온기를 전했다”고 기억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어 “고향의 내일을 걱정하고, 제주의 미래를 늘 품에 안으셨던 분, 겸손과 성실 그 너머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라며 “의원님께서 그러하셨듯, 도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정의롭고 따뜻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고인을 기렸다.

오영훈 지사는 “언제나 제주 공동체의 ‘수놓음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갈등보다 협력을, 비판보다 화합을 강조했다. 도민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던 따뜻한 분”이라며 “도민을 향한 진심, 동료에 대한 배려, 제주를 위

한 사명감, 고인의 모든 발자취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남기신 신념과 철학이 제주의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투병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봉사를 해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며 “헌신과 봉사는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대표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대륜동)가 추모글을 낭독하며 “3선 의원이자 약자들을 위한 서민 도의원으로 평가받는 의원님의 제주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우리 도민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의원님의 큰 뜻을 엄중히 받들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애도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공동묘지에 영면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장지까지 배웅했다.

故 강연호 의원은

출생

1955년 2월 1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학력

- 오현중학교 졸업
- 표선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귀포시 표선면장
- 서귀포시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녹색)환경과장
- 제10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 제10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후반기)
- 제10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제10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11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 제11대 교육위원회 위원(후반기)
- 제11대 부의장(후반기)
- 제12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수상내역

- 2016년 ‘대한민국환경창조경영대상’
- 2017년·2021년 ‘우수의원대상’
- 2019년 ‘대한민국의원대상 최고의원상’



대한민국 교육 혁신 수도 제주 꿈꾸다



고 의 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21대 대선이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과학 수도’, ‘해양 수도’, ‘5대 메가폴리스’ 등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국가 의제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대선 시기를 전후해 지역마다 향후 지역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제주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설계하자는 제안 역시 현재 대선 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제주를 독창적으로 브랜딩하고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비전으로 무엇이 있을까.

한 마을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물질을 하며 교육 기금을 마련했던 문화는 제주 사회의 자긍심이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라는 제도적 힘을 갖추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교육특별자치도, 교육 혁신 수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최근 IB 교육과정의 전국적 관심은 교육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선진적 교육 시스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인구 유입을 통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

낼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범위를 평생학습으로 확장하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학습의 장이 되는 학습자 삶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관광 산업과 연계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제주의 생태·지질 환경, 문화·역사 등을 아동·청소년·성인 수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교육과정을 연계해 코디네이팅하고, 보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배우는 관광의 ‘에듀-투어리즘’도 상상한다.

국가적 미래 교육의 중요 의제지만 실현할 수 없었던 교육 혁신 제도의 도입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제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래 학교 모델로 주목받는 초·중·고 통합학교 모델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 맞춤형 학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통합학교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학제 개편은 오랜 세월 교육 개혁 의제로 제안됐으나 법령 개정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 부족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만약 국가적 의제로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단계적, 부분적으로 도입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바로 우리 제주다.

현재 제안되는 통합학교와 학습자 맞춤형 학제 개편 모델을 이미 갖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만으로도 상당 수준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육 혁신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제주 교육 혁신 수도로서 가능성을 품고 있고 교육이 제주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의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에 걸맞은 교육 혁신 수도로서의 지원, 그리고 제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교육특별자치도, 교육 혁신 수도 제주를 제안한다.

가려진 번호판, 위협받는 시민안전

김 무 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단속을 피하거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훼손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추적하거나, 범죄 차량을 식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이러한 추적이 어려워지며, 무인 단속카메라의 기능 역시 무력화된다.

이는 교통사고의 은폐를 유도하고,

뺑소니나 범죄 차량의 도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엄중하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이 번호판에 덮

개를 씌우거나 접히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려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자동차는 공공의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며,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위반이라고 여긴 번호판 가림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회를 위해”

이 옥 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의 생활 수준은 국가와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한다. 기존에는 장애를 개인적 문제로 봤지만,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문제

로 보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구조적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 핵심이 ‘이동권의 보장’이라고 한다.

서귀포시는 재가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장애인 중 병원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교육을 이수한 병원 동행 매니저를 투입해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 내 이동 및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단순한 이동지원을 넘어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약국 방문 등 병원 이용 관련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절대 낮지 않은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이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도록 시민이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2개 장애인 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서비스 대상자의 모집 및 신청·접수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행의 핵심 인력인 동행 매니저의 관리 및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의 예산과 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이용자가 깊어지고 많아져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오늘은 나도 도의원”...의정 체험 ‘활발’

**오현중·화북초·제주중·남광초
‘1일 도의원’ 의정 체험 참여
“민주 시민 성장의 밑거름”**

오현중학교와 화북초등학교, 제주중학교, 남광초등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1일 도의원’ 체험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에 오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생생한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 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 발언 등을 직접 진행했다.

이어 5월 21일에도 화북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 참여,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자리에 참석해

“의정 체험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월 23일에는 제주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의정 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회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앞으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28일에는 남광초등학교 학생이 의정 체험에 참여한 가운데 3분 자유 발언에서 ‘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및 ‘기후 문제’ 등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함께 자리해 “우리 학생들이 지방의회 활동을 경험하며 민주 시민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리더십을 갖추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무 중심 법제 교육으로 입법 역량 ↑

**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전문가 초청 연찬회 마련
법령안 편집기 등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문 강사를 초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검색 활용법과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 등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입법 지원 업무에 필요한 법령 검색, 자구 수정, 신규

조문대비표 작성, 개정문 구성 등을 익히고 노트북을 활용해 직접 실습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법령안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날 맞아 ‘노동의 가치’ 되새겨

**도의회 특별강연회 개최
표대중 노무사 강연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 4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무법인 길 대표 표대중 노무사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여 가지 주요 노동이슈’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노동사의 흐름을 되짚었다.

표대중 노무사는 강연에서 “노동

존중의 행정, 입법 실현에 필요한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노동 현실을 고려한 제주형 노동정책 필요성을 제시하며 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특강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입법과 정책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책아이디어 찾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외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전반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도민 복리 향상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발표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를 위한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분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64-741-2339)